원효 깨달은 곳, 직산인가 화성인가

'현재진행형' 원효 스님 오도처 논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효 스님은 2번에 걸쳐 구법을 시도한다. 육로를 선택했던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에서는 해골물을 마시고 크게 깨달아 당나라로의 구법을 그만두게 된다. 그 유명한 해골물을 마신 자리, 다시 말해 원효 스님의 오도처를 놓고 학계 주장이 분분하다.

포문은 김경집 진각대학 교수가 열었다. 김 교수는 9월 14일 (재)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이 안양본원에서 개최한 제1회 계절발표회에서 원효의 구법행로와 오도처에 대해 분석했다.

김 교수는 2차 구법행로가 '경주-경산-합천-함양-장수-진안-완산주-논산-공주-직산'으로 이뤄졌음을 주장했으며, 비를 피하기 위해 여러 날을 오랜 무덤서 보냈고 노숙이 가능했던 시기였던 만큼 661년 6월 즈음을 구법 시도 일시로 봤다.

오도처에 대해 김 교수는 원랑선사 비문에 나온 '직산(稷山)'을 주목했다. 비문에는 '원랑선사는 배우고자하는 마음을 조용히 간직하고 미묘한 이치를 공부하고자 직산에 우거했다. 이곳은 신승(神僧) 원효대사가 도를 깨친 곳이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현재의 '천안 직산(稷山)'이 오도처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완산주에서 보덕화상에게 수학한 다음 배를 타기 위해 당항진으로 가려면 논산-공주-천안을 거쳐 직산을 지나야 한다"면서 "직산은 경기도에서 호서지방으로 들어서는 첫 관문으로 삼국시대부터 교통의 요지였다"고 설명했다.

지명이 '말뚝 직(稷)'에서 '기장 직(稷)'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당시 직산 지역의 특산물이 기장이었고, 이런

대행선연구원 계절 발표회서
김경집 교수 '천안 직산' 주장
서영일 "직산 범위 달라" 반박
선행 연구에선 '화성' 주장들도

이유로 지명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됐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평택 수도사 주변 포승면 일대를 원효 스님의 오도처로 주장하고 있는 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원장은 '직산'의 행정범위를 달리 해석해 김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 원장은 논평을 통해 "평택 수도사 주변 포승면 일대는 조선시대까지 직산의 월경지(越境地 · 지방 행정단위의 소속 영역 중 다른 지방 행정 단위의 영역을 넘어 들어가 위치한 지역)였다"면서 "농사는 어렵지만 항구로서 입지는 좋아 신라 말 고려 초 직산의 지방세력이 항구를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산을 수도사 부근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는 장면을 묘사한 사찰 벽화. 최근 원효 오도처를 놓고 학자들의 주장이 분분하다.

앞선 선행연구들도 비슷한 주장이 이뤄진다. 평택시의 요청으로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가 2005년 발굴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2006년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충남 직산은 신라시대 사산현이었고 직산으로 고려 초에 변경돼 원랑선사 비문에는 사용될 수 없다"며 "원효의 오도성지는 당항성 외곽의 직산이며, 평택 수도암지가 오도처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연구원으로 참여한 엄기표도 후속 연구를 통해 "비문의 직산은 산 이름이며, 원효 오도처는 당주(唐州) 경계에 있고 이를 감안할 때 평택 포승면 수도암지가 주목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화성을 오도처로 보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열린 화성불교문화유적 학술발표회에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원효 스님의 구법행로를 주목하며 '화성 당항성' 부근을 오도처로 지목했다.

당시 고 교수는 "당시 남양만 당항포의 관할지가 당성이었고, 당성이 현재 경기도 화성에 있으며, 중부횡단항로로 나아가는 출발지점이 남양만 당은포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효의 오도처는 당항성 인근 어느 무덤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며 "또한 원효의 오도처가 무덤이었다면 그곳이 현재의 사찰이기 어렵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석학이 전한 '불교사상과 재현'

셰러-숍, 타이저 교수
리앤원 주최 학술강연회

세계적인 불교 석학들에게 경전과 불교미술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리앤원은 9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불교사상과 재현'을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강연회에는 크리스티나 셰러-숍(Cristina Scherrer-Schaub) 로잔느대학 명예교수와 스티븐 타이저(Stephen Teiser) 프린스턴대 교수가 초청됐다.

인도후기 불교철학과 티베트 불교철학의 세계적 전문가인 셰러-숍 교수는 이날 강연회에서 '아름답게 쓰고 재현하고 의식행하기: 불교 문헌과 전통에서의 조화에 관하여'를 주제로 강연했다.

셰러-숍 교수는 불경의 필사와 삽화, 불교 관련 예술 활동에 나타난 미적 · 종교적 체험 등을 설명했다.

셰러-숍 교수는 "불교 문헌에서 아름다움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인도 고대의 다른 문화적 맥락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야경〉류의 전통에서 상은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은 이미지를 재현한 것이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초기 인도와 고전기의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세 불교신앙 및 의례와 돈황 사본의 전문가인 타이저 교수가 강연한 주제는 '불교 사원에 그려진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였다. 그는 강연에서 인도와 중국의 불교 사원에 있는 생사륜 도상의 변천 양상을 대중들에게 소개했다.

특히 생사륜이 중국불교에서 적은 이유에 대해 생사륜이 안에서 그려지는 영역이 다른 맥락에서 단독으로 그려지고



셰러-숍 교수



타이저 교수

불교예술 내 체험 문제 살펴
사원 생사륜 변천 과정 강연
전문가를 위한 워크숍 진행도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타이저 교수는 "우주의 가장 위쪽과 가장 아래 쪽의 영역은 중국불화에서 즐겨 다룬 소재"라면서 "중국의 중세 사원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아미타정토의 시각화는 대형 도시 사원에서 선호됐다"고 설명했다.

강연회에 앞서 9월 14일에는 서울대 인문대학 보름홀에서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서 타이저 교수는 '돈황 사본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돈황 장경동에서 발견된 불경과 문서들에 대한 연구의 최근 동향과 주요 사례들을 살폈다.

'고승과 경전을 따라 인도에서 파미르로, 다시 더 멀리: 불교의 신적 계위와 정치적 패러다임'를 발표한 셰러-숍 교수는 불교가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쪽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비롯해 인도 신들의 수용과 토착 신들과의 교류, 이에 따른 계위상의 변화 등을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학술 단신

명상에는 어떤 작용 · 부작용 있을까

중앙승가대 대학원, 10월 20일 학술대회

명상과 상담치료에서 나타나는 작용과 부작용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보각)은 오는 10월 20일 오전 9시 45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명상과 상담치료, 작용과 부작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명상, 자아, 초월, 치료 등 5개 세부주제로 진행되며 각 분야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뤄진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장애, 수행의 장애인가 발전의 토대인가'를,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명상, 힐링인가 레저인가'를, 박상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자아의 확립과 초월의 상관관계'를 발표한다. 또한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인경 스님은 '심리치료의 치유적 기능과 그 한계'를, 김종우 경희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의 명상'을 대중에게 소개한다.

논평자로는 이필원 동국대 교수, 권선아 중앙승가대 교수, 임승택 경북대 교수, 손강숙 중앙승가대 교수, 강명희 중앙승가대 교수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창건 100년 동불사 역사·성보 조명한다

동불사 · 동불연, 10월 13일 학술세미나

마곡사 공주포교당으로 건립된 공주 동불사(주지 현중)가 창건 100주년을 맞았다. 동불사 창건이 갖는 의미와 성보 문화재들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공주 동불사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오는 10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동불사 경내에서 '공주 동불사 역사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근대에 창건된 사찰인 동불사가 마곡사의 공주지역 거점 포교 사찰이었던 점과 이를 바탕으로 펼쳐진 다양한 신행운동과 포교활동 등이 조명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주요 발표로는 △마곡사 공주포교당의 설립 의미(공주 원효사 주지 해월 스님) △공주 동불사 목조여래좌상 연구(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1920년대 공주포교당의 포교방향(이병욱 고려대 강사) △공주 동불사의 근대불교신앙결사(김성순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 △공주 동불사의 풍수지형(김규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올 가을, '중론'을 배워볼까

중관학당 10월 5일~11월 2일 강독 강좌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용수의 대표 저서 〈중론〉을 강독하는 강좌가 마련된다.

공성의 배움터 중관학당은 오는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불교여성개발원 1층 지혜실에서 〈중론〉 강독 강좌 가을학기를 개최한다.

강사로는 신상환 중관학당 대표가 직접 맡는다. 신상환 대표는 타고르 대학으로 알려진 인도의 비스바 바라띠 대학의 인도-티베트학과에서 티베트학 석사 및 산스크리트어 준석사 학위, 캘커타 대학의 빠알리어과에서 철학박사 학위 취득했다. 타고르 대학의 인도-티벳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13년 귀국해 중관학당을 열어 역경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용수의 6대 저작을 전역(全譯)한 〈중관이취육론(中觀理聚六論)〉을 발간해 화제가 됐다.

이번 강좌에서는 〈중론〉의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티베트역, 한역의 특징들을 다루며 인도-티베트 불교의 입문 과정과 〈중론〉 1~16품까지에 대한 복습도 이뤄진다.

강좌 참여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참가비는 총 5강 12만원.(중관학당 후원회원 10만원) 문의(010)8801-4037

신성민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